

회원작품 | Works

비씨카드 업무빌딩 리모델링

BC Card Data Center Remodeling



김형수/정회원, ODS건축사사무소
by Kim, Hyung-soo, KIRA

약력

- 공학박사 / 건축시공기술사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학부 및 동대학 대학원 졸업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 대한건축사협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상윤/대림산업
by Kim, Sang-yoon

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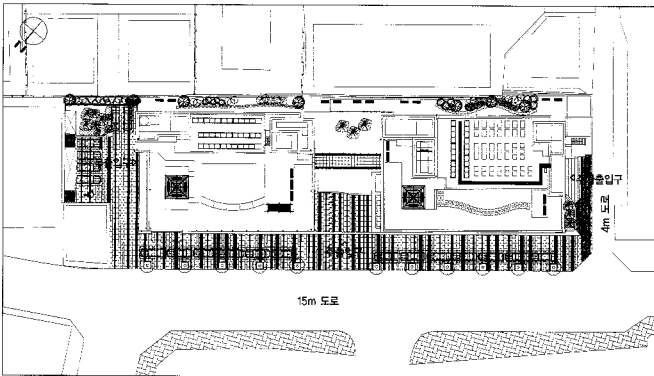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학부 및 동대학 동대학원 졸업
- 건축사

주요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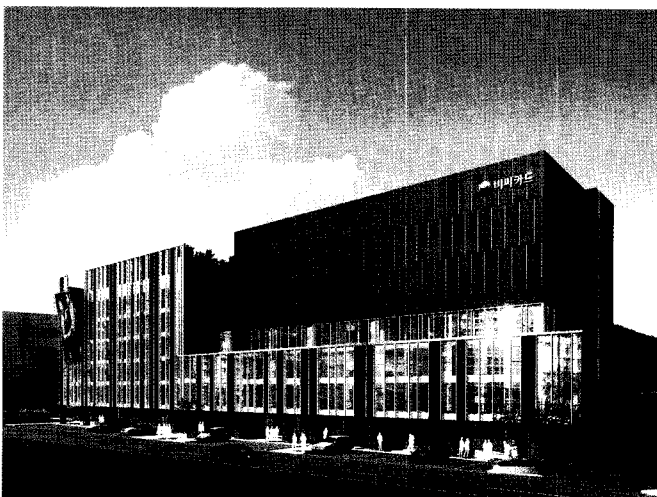
- 삼성출판사 사옥, 삼천리자전거 사옥, 인양유치원 지리산 C.C, 평촌 제일교회, 은평 순복음교회, 청와대 사랑방 외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27-1 외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3,188.69㎡
건축면적	1,569.56㎡
연면적	12,691.07㎡
건폐율	49.22%
용적률	271.71%
규모	지하 2층, 지상 6층
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외부 마감	THK4.0 A/L 복합패널, THK24칼라로이드복층유리, THK24 블루접합유리, THK30 C-BLACK
구조설계	(주)에센에스엔지니어링
설비설계	삼정설비기술사사무소
전기설계	진산엔지니어링
시공사	풍림산업주식회사
설계담당	김현철, 노진섭, 고영남



Location	1427-1,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Site area	3,188.69㎡
Bldg area	1,569.56㎡
Gross floor area	12,691.07㎡
Bldg. coverage ratio	49.22%
Gross floor ratio	271.71%
Structure	R.C.R
Bldg. Scale	B2, F6



1. 투시도 2. 리모델링 후 건물 3. 리모델링 전 건물



인간의 육체가 살아있는 것은 '영혼'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물질적 육신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기 때문이다. 콘크리트, 유리,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건물들은 단순히 철과 모래와 시멘트로 이루어진 골격이 외형을 이루고 보이지 않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통로 속에 놓여있는 배선과 배관을 통해 전기와 물이 흘러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건물의 영혼은 그 사용자가 그 건물의 용도를 부여하고 이용하여 세상에서의 삶의 가치를 만들어 주고 이 세상에 놓여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생겨난다. 실제로 명료하고 단순하며 상징적이면서 유연한 건축적 요소들은 자기 영혼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으로 세상과의 소통을 형상화한 것이기도 하다.

과거 강남의 현대화에 발맞춘 듯 한 기능을 충실히 실행할 목적으로 정형화된 블록 뒤 편에 조용히 서있던 나즈막한 동일한 형상의 두 개의 상업건물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하고 영혼을 잃은 채 쇠퇴해가는 자신의 육신을 앙상히 드러내 놓고 새로운 변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상업과 자본주의의 논리는 이들의 전면적인 폐기와 신생보다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재생에 초점을 맞추었다. 건물에 생명을



불어 넣는 '재생' 작업은 우리나라 굴지의 신용카드회사인 BC카드사의 전산시스템을 보호할 동지를 만들고자 하는 요구로부터 시작되었다. 날로 늘어가는 천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국적 네트워크 전산시스템을 보호하고 수많은 근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중심의 제2의 본사를 구상하고 있었다.

초기 계획은 기존건물의 구조를 활용하여 최대한의 경제성을 유지

한 채 신용카드회사 본사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의 보호동지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 여러 개의 목표를 통합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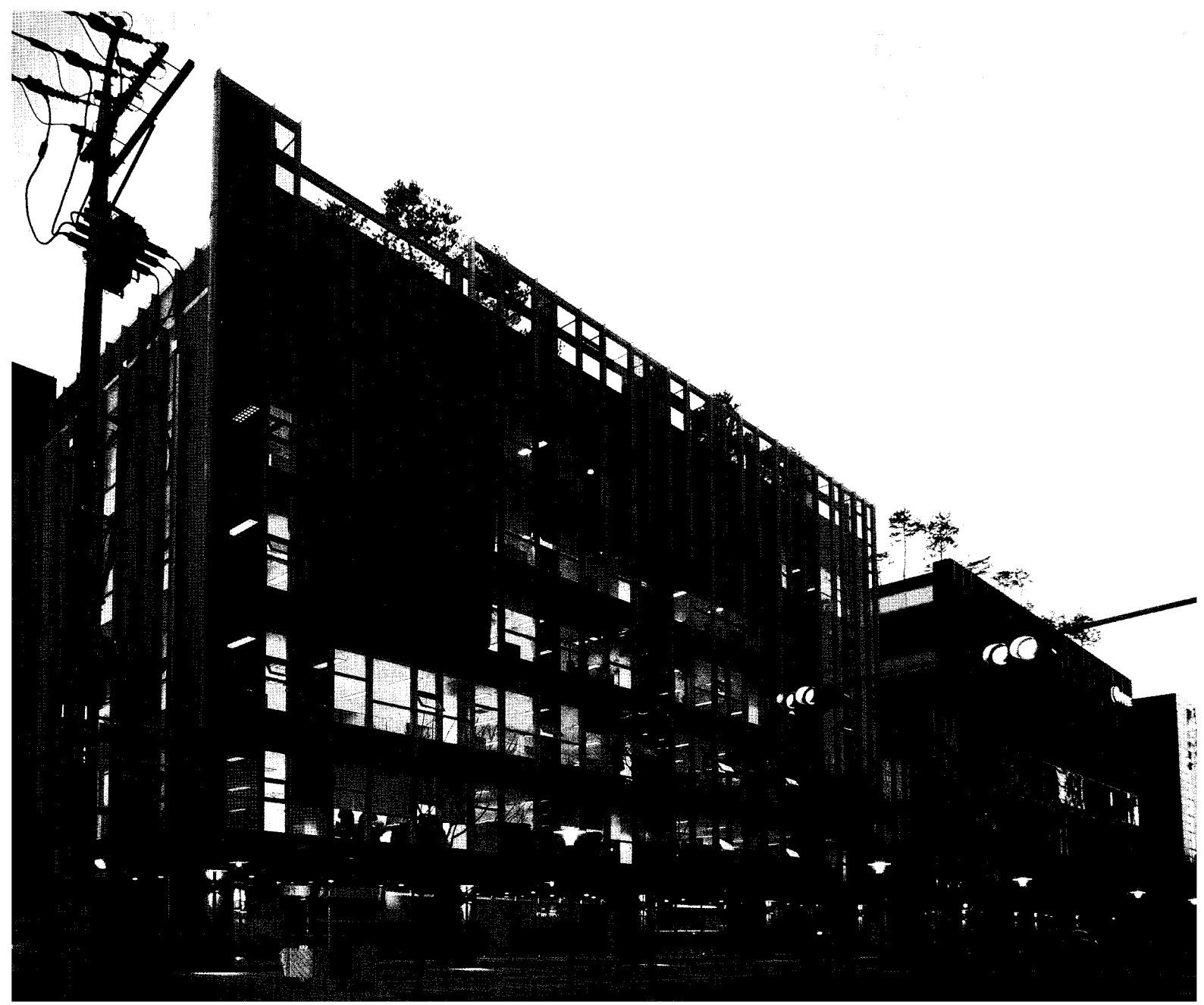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근대건축의 명제를 외부로 드러낸 표피는 도시나 전경속에서 자신만의 건축적 입장을 나타내며 비워진 내부는 건축의 기능을 담고 있다는 말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신용(Credit), 카드(Plastic), 디지털(Digital), 동지(Shelter), 네트워크(Network) 등의 단어들은 결국 건축주의 요구로 한정되는 제한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형태나 기능이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건물의 골격을 이용하여 진정한 Creditable plastic digital shelter로서 다시 재생하기를 희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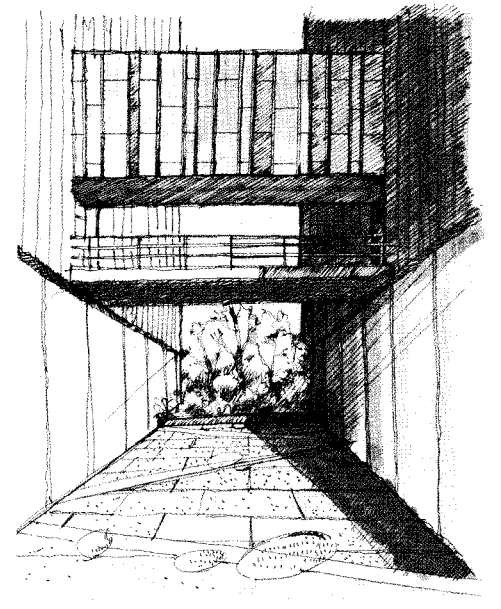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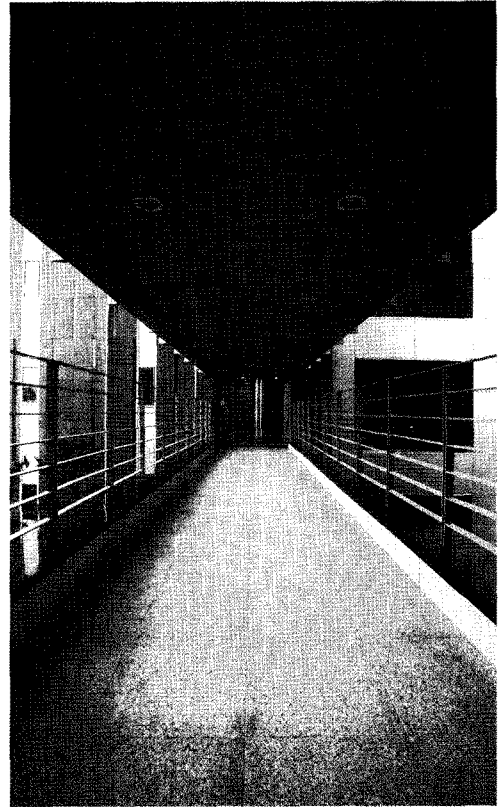
형태와 내부 기능이 거의 동일한 두개의 건물을 사무동과 전산시스템 관리동 두개의 기능을 가진 하나의 건물조합으로 구성하는데 필요한 과제는 외부표피의 도시대응과 내부 기능의 합리적 부여를 위한 중심개념의 설정과 두 건물을 통합(Integration)하기 위한 건축적 요소의 선정이었다. 신용카드회사의 본사라는 도시의 전경속에서의 이미지 구축은 신뢰의 견고함과 첨단시스템의 자연스런 표출로 Black mass의 화강석 이미지와 선명한 디지털 문양의 유리재질이

선정되고 사무동과 전산시스템 관리동으로 능동적으로 분리된 두개의 기능적 건물의 연결은 포켓파크와 외부 브릿지를 통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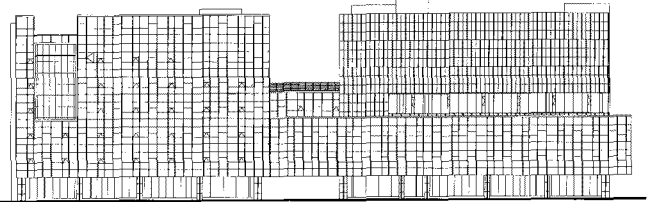
초기에 거친 화강석과 스테인레스의 반복적 조합으로 제안되었던 전산시스템 shelter의 black mass는 결국 물갈기와 버너구이의 재질로 표현되었지만 반복적 이미지가 갖는 안정적 언어가 신뢰와 신용, 안전과 첨단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두 건물의 일체성(Unity)과 통합(Combine), 그리고 본사의 현대적 이미지 구축을 위해 도입한 디지털문양의 거대한 유리패널은 신뢰와 신용도가 높은 첨단 시스템을 보유한 초유의 신용카드회사라는 점을 나타내는 표현주의적 감성을 조금은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사무동과 관리동의 주출입구는 기존 건물의 코어를 옮기는 과감한 작업을 통해서 건물 중앙의 포켓파크와 브릿지의 형성으로 입구성이 강해진 기존건물들의 사이로 정해져 형성되었다.

도시 관중의 기억속에 각인될 이미지형성에 기여할 유리패널 한쪽에 회사 로고컬러의 솔리드한 광고판과 건물의 인지를 시작하는 모서리에 놓여진 쇼윈도의 설정은 소비자로부터 완성된 회사라는 고유의 서비스정신이 대중과의 소통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적 제스처와 함께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





- | | |
|-------------|----------------|
| 1. 건물 연결부분 | 5. 오른쪽 등층부 디테일 |
| 2. 2층 신상부밧지 | 6. 입면 디테일 |
| 3. 브릿지 스케치 | 7. 중간 브릿지 |
| 4. 전경 파노라마 | |



변경전 정면도

변경후 정면도

